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가동

임실군, 찾아가는 행복누리단 운영

임실군의 민선 7기 대표 복지 공약 사업인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가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를 내걸며, 그 일환으로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은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어르신들에게 여가와 복지, 건강, 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직접 찾아가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런 가운데 군은 12일 하운안에서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을 민선 7기에 첫 운영, 소외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다. 필봉음악보존회의 사물놀이와 민요로 시작한 행사는 회의실과 광장에 마련된 각 부스를 마련하여 임실군보건의료원의 한방진료, 구강검사, 치매 예방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도 참여하여 민·관이 함께 어우르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었다. 일자리 참여에 관심이 있는 어르신들은 시니어클럽에서 마련된 부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등 열정적인 모습이었다. 이와 함께 임실군 자원봉사센터는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방문해 집 청소와 도배장판 봉사활동을 펼쳤다. 임실경찰서와 임실군노인복지관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앞으로 4개 권역의 맞춤형복지팀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이장단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심민군수는 "평소 지리적으로 떨어져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찾아가서 지원하겠다"며 "찾아가는 행복임실누리단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노후를 즐기실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종영 기자

순창군, 대한민국 당뇨 치유 1번지 '급부상'

전국 당뇨캠프 교육 성황리에 마쳐

순창군이 전국 당뇨치유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1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전문당뇨 교육팀과 당뇨 환우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8년 전국 당뇨캠프'를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7월에 있었던 호남권 당뇨캠프에 이어 전국 규모 당뇨캠프를 성공리에 마치면서 명실상부 치유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번 캠프는 의료 간호 영양 운동 등 분과별 전문 당뇨 교육팀과 당뇨환우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당뇨관련 행사로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당뇨협회에서 주관했다. 당뇨캠프는 당뇨환자와 가족들

이 함께 모여 당뇨에 대한 최신 이론과 체험, 검진,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 당뇨치유법을 익히고 당뇨관리의 실천의지를 높이는 대규모 행사다. 특히 전문가들이 참여해 당뇨치유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당뇨환우들의 신뢰를 얻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당뇨 환우들이 각 조별활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또 전북대 박대선 교수와 우석대 강민구 교수의 당뇨병에 대한 이론강의로 복용하는 약물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심진강 돌레길 걷기와 발효식품 체험 등 신체적 활동은 물론, 저(低)나

트륨 식단제공 및 당뇨식 요리실습 등 교육생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돼 만족도를 높였다. 마지막날 열린 의료팀의 질의응답 시간은 참가자들의 궁금증이 쏟아지면서 캠프의 대미를 장식했다. 노홍래 부군수는 입소식 축사를 통해 "귀중한 시간을 내서 당뇨캠프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당뇨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바른먹거리 당뇨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뇨나 만성질환자가 언제든지 머무르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실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시민 · 관광객 화합의 장 이뤘다

남원시, 흥부제 결과 보고회

남원시는 지난달 개최한 제26회 흥부제 결과보고회를 이환주 시장, 김진석 제전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회의실에서 가졌다. 올 제26회 흥부제는 기념식, 개막 축하 폐막공연, 흥부樂 놀부樂 한마당, 흥부골농악경연대회, 흥부가왕, 흥부사랑 떠나눔 행사 등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고 대중성 있는 프로그램 진행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축제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중가수와 아이돌이 출연하는 개막공연과 7080가수로 꾸며진 흥부樂 놀부樂 한마당은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으며, 올해 처음으로 선보인 거리노래방 흥부가왕은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많은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냈다. 사랑의 광장과 광장주차장을 중심으로 축제장 배치를 재구성하며 쾌적하고 편리한 축제관람 환경을 제공한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지난 해 아쉬웠던 먹거리 부족 문제를 다양한 메뉴의 푸드트럭과 막걸리 추어부스로 보완해 축제장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켰다는 평이다. 반면 사랑의 광장에서 진행된 흥부사랑 떠나눔 행사에 예상보다 인원이 참여해 프로그램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진석 제전위원장은 "열과 성을 다해 행사준비를 하고 행사기간 동안 단 한건의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마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에는 보다 알차게 준비하는 등으로 흥부정신을 널리 알리자"고 강조했다. 이환주 시장은 "흥부제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분석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해 내년 제27회 흥부제는 더욱 치밀하고 알차게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찾아가는 과학관'이 전북권 운영기관에 선정됐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거점 과학관 '선두'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교실' 전북권 운영기관 선정

남원항공우주천문대가 2018두드림프로젝트 '찾아가는 과학관, 과학교실' 공모사업 전북권 운영기관에 선정돼 전북과학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다양한 과학문화 체험 전시시설과 전문해설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간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사)한국과학문화진흥회가 주관했으며, 프로그램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사업비는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기금사업비에서 지원한다. 2018두드림프로젝트는 순창군 청소년수련관에서 11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과학관의 전시 구성은 '공존의 혁신-생체모방'이라는 주제로 ▲생물의 과학적 원리나 과정을 모방한 과학기술 ▲

생물의 기능을 모방한 과학기술 ▲생체모방의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인류가 나아갈 우주 탐구 등의 총 4개 주제로 구성됐다. 남원항공우주천문대는 2009년에 개관해 600mm 반사망원경, 152mm 굴절망원경, 354mm 반사 굴절 망원경, 보조관측실, 교육실, 천체투영실, 항공체험실, 전시실 등을 갖추고 별자리 탐방과 우주에 대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다양한 외부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지역내 부족한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나아가 전북권 거점과학관으로서의 선두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항공우주천문대(063-620-8988)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20일까지 39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성균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은 원인규명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다"면서 "내년 예산은 군민의 희망이 담긴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제1차 정례회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계수)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계수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군 주요정책에 대해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개선 요구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서부산림청 현장 규제혁신 홍보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산업의 규제 완화로 작용되었던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2018. 8. 22 시행) 및 검사기관 확대(2017. 6. 3)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현장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자격기준 완화,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목재등급평가사로 등록해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 확대를 통해 수입목재제품에 대해 국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품질검사를 국내만이 아닌 수출국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 제도개선과 규제 완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내년부터 2년간 위탁운영

순창군이 귀농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를 모집한다. 운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올해 기준으로 1억7,000만원의 위탁금을 지원한다. 대상지역은 귀농귀촌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한다. 접수는 오는 14일까지 순창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계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업무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교육(476.9㎡)과 숙소(192.6㎡)의 시설관리 업무부터 귀농·귀촌인의 상담

업무, 교육 등 귀촌과 귀농 관련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권일수 귀농귀촌계장은 "도시민들이 순창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자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순창군에 대한 애정과 귀농·귀촌과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법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지난 3년간 매년 1,00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을 유치한 바 있으며, 도시민 상담소 운영과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등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